

# 靑 수석·비서관급 인사 단행

경제 윤종원·일자리 정태호·시민사회수석 이용선  
기존 사회혁신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로 명칭 변경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새 경제수석비서관에 윤종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특별전권대사를 임명했다. 일자리수석에는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또 기존 사회혁신수석실의 명칭을 시민사회수석실로 변경하고 새 시민사회수석으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이러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일자리수석으로 새로 임명된 정태호 비서관은 청와대 주요 비서관을 역임했다"며 "정당의 정책과 정부 업무를 두루 경험한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드문 정책통으로 인정받는 분"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정부 첫 정책기획비서관을 맡아서 주요 국정과제를 기획하고 실행해온 분"이라며 "그 추진력으로 일자리 창출정책에 보다 속도를 내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에 관해 임



윤종원 정태호 이용선  
실장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겸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로서 3년 여 동안 주OECD 대사로 역임해오신 분"이라며 "국내외로 최고 실력을 인정받는 경제정책 전문가로 평평 나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 신임 수석은 거시경제와 실물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함께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철학에 가장 부합하는 분"이라며 "경제전반에 대해 새로운 활력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임명에 대해 "저희가 초기에 사회혁신수석실에서 문재인정부의 1년여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데 조금 더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시민사회수석실 개편과 이용선 수석의 임명은 시민사회 전반과 보다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여야 원내대표, 오늘 국회 원구성 협상 돌입  
국회의장단 선출 격론 예상

여야는 오는 27일 오후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열고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위한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김관영 신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예방한 자리에서 "김관영 원내대표님과 사전 교감을 가졌고, 오전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평화와 정의의 모임 장병완 원내대표와도 조울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27일 오후 2시 반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원구성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의장단 선출과 18개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뉴시스



국가 R&D 혁신방안 당정협의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R&D 혁신방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민주 전준위, 차기 지도부 선출방식 논의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차기 지도부 선출방식 논의에 착수했다. 오세재 전준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전준위 회의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문재인 정부 2, 3년차를 책임지고, 21대 총선의 공천과 승리를 견인해야 될 지도부를 구성하는 막중한 전당대회가 될 것"이라고 강

조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해서 화합과 단합의 전당대회를 해서 국민이 바라는 책임여당의 지도부가 돼야 한다"며 "친문(親文)·비문(非文) 등 '계파'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비전과 정책을 통해서 당원 중심, 국민의 지지를 받는 훌륭한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대표 선출과 최고위원 선출, 당헌당규(개정) 등 제반 준비사항에 대해 공정성을 바탕으로 두고 훌륭히 준비해달라"고 전준위원들에게 주문했다. 민병두 부위원장은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을 교체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인 당이 돼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새 지도부가 출범해야 한다"며 "새 지도부의 사명과 임무는 세가지다. 첫째 평화와 안보에 강한 정당이 돼야 한다. 둘째 경제에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

다. 셋째 기존 직책을 청산하고 개혁을 완성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당대회 규칙과 관련한 견해도 내놨다. 그는 "다음 지도부가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성과 형식을 갖춰야 한다"며 "당원 중심의 정당, 당원에 맞게 가는 정당이 돼야 한다. 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가 일상과 접촉 못해 놓치는 부분을 당이 신경망이 돼서 수습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조직개편 폭 크지 않을 것”

靑, “한창 논의 중... 신임 수석과 함께 준비 속도감 있는 성과 위해... 활력 부여 취지”

청와대는 26일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조직 개편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적 교체 외에 다른 조직 보강의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특별히 조직적으로 많은 개편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초를 변경해야 한다기 보다는 국민들께서 과부하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내자', '다시 긴장하자', '새롭게 활력을 부여하자'는 이런 취지가 조금 더 강하다"고 덧붙였다. 이 고위 관계자는 그러면서 "현재 비서관급 이하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한창 논의 중"이라며 "신임 수석들이 결정됐으니 그 분과 같이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고, 교체가 필요한 비서관실에 대한 인사도 준비를 해서 조만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교체가 최근 악화된 경제지표와 관련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층 더 속도감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의 개편으로 봐주시면 대체로 인사편차의 의미라 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이 조금 더 넓은 보폭을 시민사회혁신수석에 기대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인간이라는 질문에 이 고위 관계자는 "그 문제를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을 정부비서관으로 승격이동한 배경에 드루킹 사건이 연관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고위관계자는 "그 문제와 직접 관련이어서 (인사를)한 것은 아니다"라며 "알다시피 워낙 격무라 일부 순환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비서관에 대한 혐의가 문제가 된 게 아니다. (특검이 수사를) 해도 참고인 정도가 아닐까 싶다"며 "그 부분이 직접적인 인사에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사회혁신수석실을 기존의 시민사회수석실로 명칭을 바꾼 배경에 대해 이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2기와 함께 원로부터 사회 전반적으로 시민사회 쪽으로 조금 더 보폭을 넓혀서 종교·직능·노동·정치권 등 조금 더 소통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쩌면 시민사회수석실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회와 만나는 창이라 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이 조금 더 넓은 보폭을 시민사회혁신수석에 기대린 개각의 방향과 맥이 닿은 것

## “김성태 퇴진요구, 무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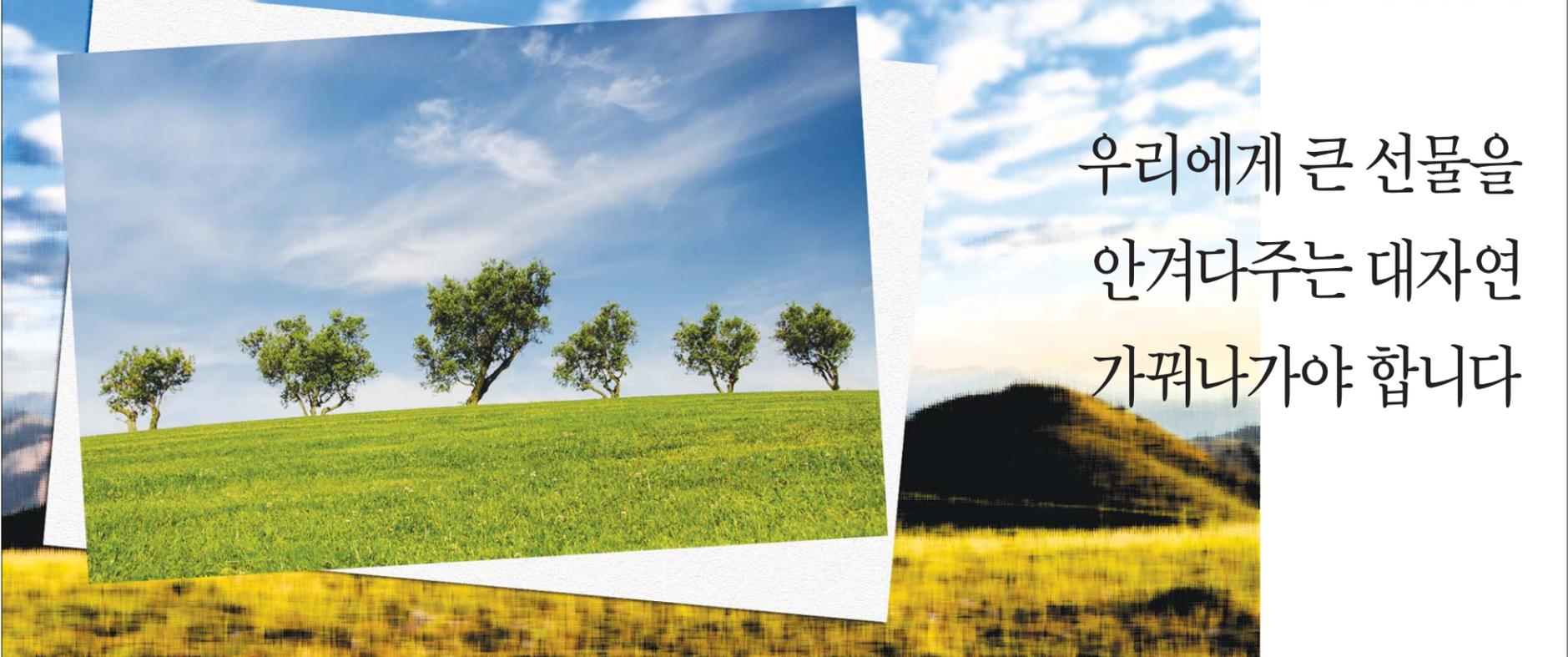
자유한국당 3선 의원

자유한국당 3선 의원은 26일 정우택·심재철 등 일부 중진의원들이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 "부당하고 무례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으로 일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 권한대행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강석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회관에서 열린 3선 의원 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모임에서 김 원내대표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일부 있었지만 지금은 국회정상화와 원구성이 더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전날 열린 초재선의원 모

임에서 김 원내대표의 유임으로 뜻이 모인 것과 관련 "그 분들이 어려운 당을 위해 장시간 토론한 부분을 봤다"며 "3선의원들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정우택·심재철·유기준·홍문종·이주영 의원 등 중진의원들이 김 권한대행의 사퇴를 직접 촉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그 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겠지"라며 "제가 굳이 그분들이 김 원내대표의 퇴진요구 의견에 대해 비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학용·김광림·황영철·권성동·이진복·김용태·이종구·여상규·홍일표·박순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명품종합상사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